

현대시에 나타난 현해탄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박 경 수**

차 례

I. 서론

III. 결론

II. 현해탄 체험의 시적 형상화 양상
과 의미

I. 서론

근대 계몽기 이후에 바다를 제재로 한 시작품들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고전문학에서도 바다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여러 장르에 걸쳐 찾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설화나 각종 「표해록(漂海錄)」류의 실기 문학에 집중되어 있고, 시가로 창작된 작품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¹⁾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박인로의 「선상탄」, 김진형의 「북천가」,

* 필자는 『문학도시』 통권 64호(2006. 5)에 「한국 현대시와 현해탄」이란 소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당시보다 논의 작품들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내용도 대폭 수정, 보완하여 다시 쓴 논고임을 밝혀둔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1)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지평의 문학』 통권 2호(1994. 3), 20-40쪽 참조. 조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등이 비교적 잘 알려진 바다 제재의 시조나 가사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들 고전시가 작품들은 바다 자체에 대한 형상화를 추구했다기보다 작자의 심회를 일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바다를 관조적으로 바라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대 계몽기 이후 바다는 다양한 감각과 정서, 그리고 세계인식의 토대 위에서 형상화되었다. 고전시가와 달리 바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적 형상화의 폭을 넓히면서 이른바 ‘바다시’의 한 계보를 형성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남선을 필두로 정지용, 신석정, 김기림, 임화, 서정주 등의 바다 제재 시작품들로 이어진 흐름이 그것이다.²⁾ 여기에 현해탄(玄海灘)은 바다에 대한 다양한 체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형상화의 중요한 대상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다.

현해탄은 1905년 9월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를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이 처음 취항한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근 40년 동안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나아가서 세계와 연결되는 중심적인 통로로 술한 사

익은 고전문학에서 바다 제재의 작품이 폭넓고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시가문학에서는 대체로 부진했다고 파악했다.

조규익과 달리 오세영은 고전문학에서 바다에 관한 관심이 후기로 갈수록 부진했다고 보았다. 그것은 예와 증용, 그리고 금욕적 성윤리를 중시하는 유교가 반규율적이며 모험과 도전이 충일된 세계의 바다와 조화되지 못하고, 성과 관련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다에 자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파악한 바 있다. 오세영, 「한국문학과 바다」, 『20세기 한국시의 표정』(새미, 2001. 12), 321쪽. 그런데 오세영이 검토한 바다 제재의 작품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면서, 바다를 성 상징으로 보는 관점과 유교의 금욕주의를 대비한 것은 상호 배타적 관점에 의한 합리화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견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오세영, 「한국문학과 바다」, 위의 책, 327-333쪽에서 최남선, 신석정, 김기림, 서정주의 일부 시작품을 중심으로 미학적 관점에서 바다시의 흐름을 짚어보았으며, 양왕용은 「한국 현대 해양시와 현해탄·대양·연근해 체험」, 『한국시문학』 제15집(한국시문학회, 2004. 12), 48-76쪽에서 최남선, 정지용, 임화로 이어진 일제 강점기의 ‘해양시’와 박인환, 김성식, 김보한, 이충호, 진경옥, 송유미 등 광복 이후 현대 시인들의 시작품들에서 해양시의 새로운 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

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갔던 뱃길이었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많은 청년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계나 근대 체험을 위한 도정으로 현해탄을 건너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현해탄 체험은 청년 문학인들에게 각별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해탄(玄海灘)이란 용어는 안타깝게도 불행한 역사 속에서 생겨난 명칭이다. 본래 현해탄은 일본 큐슈(九州)의 북서부에 펼쳐진 해역으로, 쿠로시오해류(黑潮)가 지나면서 바다색이 검으면서도 수심이 비교적 얕다 하여, 일본인들이 겐카이나다(玄界灘) 또는 겐카이(玄海)라고 부르는 곳이다. 현해탄이란 우리가 이 명칭을 한자로 바꾸어 부르면서 일반화된 용어³⁾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명명한 명칭이 아니다. 더구나 현해탄이라 불리는 해역은 엄밀히 말하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와 대마도를 연결하는 스시마해협(對馬海峽)의 동남쪽에 위치한 일정 해역에 한정되며, 지리학상 부산과 대마도 사이를 지칭하는 대한해협과는 구별되는 해역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해탄이란 용어를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부산과 시모노세키, 즉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당시 관부연락선이 오고 갔던 해역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해탄이란 명칭과 그 지리학적 위치에 관한 정확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역사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해탄이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40년의 역사에서 술한 희비가 교차되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현해탄은 근대의 문물이 수용되었던 공간이기도 했지만, 일제의 조선 경제 침탈로부터 동북아로의 군국주의 확장을 위한 전진 통로로 기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해탄은 식민지 조선의 술한 젊은이들이 근대적 지식과 학문을 동경하여 유학을 떠나고 또 돌아왔던 뱃길이었으며, 조선의 수많은 노동이민자들이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던, 즉 민족 이산(離散,

3) 『학원세계대백과사전(2)』(학원출판공사, 1994. 5), 138-139쪽에 있는 「겐카이나다」 항목 참조.

Diaspora)의 비극적 행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뱃길에서 더러는 민족 해방의 의지로 반제국주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거나 실천적 투쟁을 도모하기도 했을 것이며, 더러는 제국주의의 거대한 벽과 민족차별의 현실에 부딪쳐 좌절하거나 또는 분노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처럼 현해탄은 근대와 전근대, 민족과 친일, 침략과 투쟁,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이상과 현실 등 여러 이항 대립적 가치들이 분기되거나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역사적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 글에서 현해탄에 관해 갖는 문학적 관심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현해탄을 문학적 제재나 배경으로 삼은 작품들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또는 영화) 등 다양한 문학예술 장르에 걸쳐 있다.⁴⁾ 이들 다양한 문학예술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시작품들에 한정하여 현해탄 체험의 시적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역사적 공간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주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듯이, 문학작품에서 현해탄 체험의 문학적 수용 역시 다양한 세계인식을 투영하는 언어의 코드(code)로 문맥을 형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물론 현해탄은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세계인식의 대상 공간이기 이전에 ‘물’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로서 다양한 형상적 인식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4) 『문학도시』 통권 64호(부산문인협회, 2006. 5)에서 ‘한국 현대문학과 지리지 - 현해탄’이란 기획주제를 설정하고, 시, 소설, 희곡, 영화 분야에서 현해탄을 제재로 한 작품들을 검토한 바 있다.

시 장르 외에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1995), 김우진의 희곡 『난파』(1926), 한운사의 시나리오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0, 김기영 감독에 의해 1961년 영화화됨), 박기채 감독의 영화 『조선해협』(1943) 등이 현해탄을 제재로 한 주요 문학예술 작품들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발표된 작품 외에도 ‘재일(在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표한 문학작품들도 상당수 찾을 수 있다. 광복 이후에 일본어로 발표된 김달수의 소설 『현해탄』(1954)과 허남기의 국문 시집인 『조선해협』(1959)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작품들이다.

5)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청

이 글은 이런 관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해탄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작품의 맥락을 기본적으로 세계인식의 투영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되, 그것이 시인에 따라 또는 시의 유형적 성격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는지 그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이 논의된 바 있지만, 정지용과 임화의 바다 시 중에서 현해탄 관련 시작품들을 연구목적에 따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도일(渡日)’ 노동이민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김석송, 정노풍, 심훈 등 이른바 유민시⁶⁾ 작품들과 당시 제일 한국인에 의해 일본문단에서 발표된 시작품들 중에서 현해탄 체험을 반영한 김병호, 백철, 김용제의 일어서 작품들을 주목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시작품들을 통해 현해탄이 민족 이산(離散, Diaspora)의 비극적 행로를 형상화한 중심적 대상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현해탄 체험의 시적 형상화 양상과 의미

1. 지식인의 주체 성찰과 세계인식의 두 양상

(1) 주체 긍정의 내면풍경과 낙관적 세계인식: 정지용의 시

정지용(鄭芝溶: 1902-1950)에게 현해탄의 체험은 여느 시인들과 달랐다. 그가 유달리 바다시편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다 체험이 그에게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내륙지방인 충북 옥천 태생인 그가 휘문

하, 1989. 7), 147-158쪽에서 물은 시간, 재생, 죽음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6)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실천문학사, 1987), 12쪽. 이 책의 158-172쪽에서 일본 유이민의 현실을 시적 소재로 끌어들인 시 작품들을 한 항목으로 잡아 별도로 논의했다.

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동지사대학으로의 유학길에 오른 이후 여러 차례 넘나들어야 했던 현해탄은 그에게 특별한 느낌과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상당수의 바다시편을 창작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지용은 일본 유학기간인 1923년 5월부터 1929년 6월까지 10편의 바다시를 썼고, 유학 이후에도 9편의 바다시를 남겼다.⁷⁾ 이들 19편의 바다시 작품들이 모두 현해탄의 체험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현해탄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지를 남기고 있거나 작품의 문맥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을 여럿 찾을 수 있다. 그런 작품이 「갑판(甲板) 우」, 「선취(船醉)」란 제목의 두 작품, 「해협(海峽)의 오전 두시(午前 二時)」, 「다시 해협(海峽)」 등이다. 먼저 유학시절에 씌어진 다음 작품을 보자.

① 나지익한 하늘은 白金빛으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잔 바람에 뺨마다 고흔 피가 고이고

배는 華麗한 짐승처럼 짓으며 달려나간다.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海賊같은 외딴섬이

홀어져 날으는 갈매기떼 날개 뒤로 문짓 문짓 물러나가고,

어디로 돌아다보든지 하이얀 큰 팔구비에 안기여

地球덩이가 동그랗타는 것이 길겁구나.

7) 정지용이 유학기간에 쓴 바다시로 「갑판 우」(『문예시대』 2호, 1927. 1), 「바다 1」, 「바다 2」, 「바다 3」, 「바다 4」(이상 『조선지광』 64호, 1927. 2), 「바다 5」(『조선지광』 65호, 1927. 3), 「선취」(『학조』 2호, 1927. 7), 「풍랑몽」(『조선지광』 69호, 1927. 7), 「갈매기」(『조선지광』 80호, 1928. 9), 이외 일어로 발표된 「해(海) 2」(『근대풍경(近代風景)』 제2권 2호, 1927. 2)가 있으며, 유학 이후 쓴 바다시로 「바다 1」(『시문학』 2호, 1930. 5), 「바다 1·2」(『신소설』 5호, 1930. 9), 「바람은 부읍는데」(『시문학』 3호, 1931. 10, *『정지용시집』에는 「풍랑몽 2」로 수록됨), 「해협의 오전 두시」(『가톨릭청년』 1호, 1933. 6, *『정지용시집』에는 「해협」으로 수록됨), 「갈닐레야 바다」(『가톨릭청년』 4호, 1933. 9), 「다시 해협」(『조선문단』 24호, 1935. 7), 「바다 2」(『시원』 5호, 1935. 12), 「선취」(시집 『백록담』, 1941. 9) 등이 있다.

넥타이는 시연스럽게 날리고 서로 기대슨 어깨에 六月별이 시며
 들고
 한없이 나가는 눈사람은 水平線 저쪽까지 旗폭처럼 퍼덕인다.
 — 「갑판(甲板) 우」⁸⁾

- ② 배 난간에 기대 서서 회파람을 날리나니
 새까만 등솔기에 八月달 해사살이 따라워라.

금단초 다섯 개 달은 자랑스러움, 내쳐 시달품.
 아리랑 쪼라도 찾아 볼가, 그전날 불으던,

아리랑 쪼 그도 저도 다 닳았습네, 인제는 버얼서,
 금단초 다섯 개를 빼우고 가자, 파아란 바다 우에.

담배도 못 피우는, 송닭같은 머언 사랑을
 홀로 피우며 가노니, 닥긋 닥긋 흔들 흔들리면서.
 — 「선취(船醉)」 전문⁹⁾

위에서 시 ①은 발표 당시 작품 끝에 “1926. 6 현해탄(玄海灘) 우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면서 느끼는 소회를 밝고 긍정적인 감각으로 노래하고 있다. 백금빛으로 감각화 된 하늘, 유리판처럼 부서지는 물결, 피부를 자극하는 “동글동글 굴러오는 짙 바람”의 묘사가 모두 갑판 위에서 있는 화자의 명랑한 마음을 표상한다. 여기에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달려 나간다고 해서, 관능적인 감각도 덧붙인다. 화자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세계도 화자와 정서적 동일화를 보여준다. “해적같은” 외딴섬이 비껴가고, 갈매기들도 날개짓을 하다 물러가는 정황의 묘사가 화자의 즐겁고 들뜬 마음이 투사되어 있다.

8) 『문예시대』 2호(1927. 1). 인용 시는 최종본인 『정지용시집』(시문학사, 1935. 10), 42쪽에 수록된 작품임.

9) 『학조』 2호(1927. 7). 인용 시는 『정지용시집』, 58쪽에 수록된 작품임.

그리고 시원스럽게 바람에 날리는 넥타이, 유월의 따듯한 햇빛을 받는 어깨의 묘사도 화자의 밝고 명량한 마음을 환유하는 이미지들이다.

②의 시 「선취」도 제목처럼 배를 타고 가는 흥겨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과 같은 맥락을 보이는 작품이다. “배 난간에 기대 서서 회파람을 날리”고, “새까만 등술기에 八月달 해사살”을 따갑게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①에서 바람에 시원스럽게 넥타이를 날리며 유월의 따듯한 햇빛을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금단추 다섯 개 달은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현해탄의 뱃길에서 일본 동지사대학 영문과에 유학하고 있는 정지용 자신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 내쳐 아리랑조의 노래를 찾아본다고 했다. 아리랑조의 노래가 무의식에 잠복된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유학길에 오른 화자의 들뜬 감정과 자긍심을 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된 셈이다. 그렇지만 이내 “아리랑 쯤 그도 저도 다 낫었읍네, 인제는 버얼서”라고 변덕스럽게 너스레를 친다. 고향을 멀리 떠나온 화자의 들뜬 감정과 기대가 지나친 나머지 일본에 먼저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송담같은 머언 사랑”이나 꿈꾸고 있는 화자의 동요된 마음이 “늑긋 늑긋 흔들 흔들리”는 선취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화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분명 둔화되어 보인다.

다음 시는 일본 유학 이후에 쓴 현해탄 체험의 시이다. 처음 발표 때는 「해협(海峽)의 오전 두시(午前 二時)」였는데, 『정지용시집』(1935. 10)에서는 「해협(海峽)」으로 제목을 바꾸어 실었다. 한밤에 현해탄을 건너 오는 화자의 시선이 여전히 낙관적인 세계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砲彈으로 뚫은듯 동그란 船窓으로
 눈썹까지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엿보고,

하늘이 함폭 내려 앉어

큰악한 암탐처럼 품고 있다.

透明한 魚族이 行列하는 位置에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

망토 깃에 솟은 귀는 소라속 같이
소란한 無人島의 角笛을 불고

海峽午前二時の 고독은 오롯한 圓光을 쓰다.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

나의 靑春은 나의 祖國!
다음날 港口의 개인 날세여!

航海는 정히 戀愛처럼 沸騰하고
이제 어드메쯤 한밤의 太陽이 피여오른다.
— 「해협(海峽)」 전문¹⁰⁾

이 시는 처음부터 “동그란 船窓으로” “水平이 엿보고”라고 해서, 선창 밖에서 선실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선에 의해 자아를 투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 시는 자아가 바라보는 외부세계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작품이 아니다. 마치 거울에 자아를 비추어봄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하듯이, 이 시는 외부세계의 시선으로 자아의 내면풍경을 그려내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자아를 바라보는 외부세계의 시선이 따로 있는 듯하지만, 자아의 내면에서 상상된 풍경과 외부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아와 세계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정시의 본질이듯이, 이 시에서도 자아는 세계와 동일화된 상태, 오히려 거대한 외부세계에 자아가 감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0) 『정지용시집』, 22-23쪽.

그래서 “오전 두시”인 한밤의 시간에 자아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늘이 함푹 내려 앉어/큰악한 암 탐처럼 품고 있”는 바다가 자아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 포근함과 안정감을 자아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이 시의 자아는 ‘훗하게’, 즉 마음이 홀가분하게 앉아 있다. 이 시를 두고 선창 안에 갇힌 고독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거나,¹¹⁾ “절망적인 chaos의 자기 인식”¹²⁾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런 해석은 시의 화자가 위치한 선실의 정황을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자아는 한밤의 깨어있는 정신을 통해 “무인도의 각적(角笛)” 소리가 들리는 듯이 민감한 감각을 발산한다. 그리고 “해협이 오전 두시”라고 했지만, “한밤의 태양”으로 비유된 밝은 달이 “오롯한 원광(圓光)”으로 자아를 감싸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자아는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자”고 했다. 실제로는 서럽지도 않지만 달무리가 환하게 감싸는 낭만적인 정경에 소녀처럼 서러운 분위기에 젖어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나의 青春은 나의 祖國!”이라는 언술이다. 이 언술은 소녀같이 낭만적 분위기에 휩싸인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급작스럽지만 진지한 자기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청춘이 곧 조국이라는 동일성의 인식은 젊은 시절 꿈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간 시인의 내면에 잠복되어 있던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춘과 조국의 동일성 인식이 다음 행에서 “다음날 港口의 개인 날씨여!”라고 하며, 엉뚱하게 날씨에 관한 진술로 변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청춘=조국=다음날의 개인 날씨’의 언어 연쇄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기대

11) 문덕수, 『한국 현대 모더니즘시 연구』(시문학사, 1981), 80쪽.

12) 이사라, 「정지용 시의 기호론적 연구」, 오세영 외, 『구조와 분석 I』(도서출판 창, 1993), 259쪽.

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지용이 청년시절 희망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며 가졌던 낙관적 세계인식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시의 화자는 그래서 현해탄을 향해하면서 연애편지처럼 들뜬 감정으로 찬탄하고, “한밤의 태양이 피어오르는” 상승적 에너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보았듯이, 정지용의 시에서 현해탄은 청년시절 유학의 길에 오른 지식인의 뿌듯한 자긍심과 연결되면서 낙관적 세계인식과 주체 긍정의 내면의식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주체의 자기성찰과 비판적 세계인식: 임화의 시

임화(林和: 1908-1953)에게 현해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38년에 낸 첫 시집 이름을 『현해탄』으로 붙였을 정도이니, 현해탄과 관련된 시인의 의식을 남달리 나타내고자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시집에는 1934년부터 1937년 사이에 창작된 시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현해탄 체험의 시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 있다.

그런데 임화는 정지용처럼 현해탄을 오고갔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1929년 7월에 그는 김기진과 박영희의 도움으로 연극과 영화를 배우기 위해 독일했다가, 1년여 동안 카프(KAPF) 동경지부에 속한 이복만, 김두용, 김남천, 안막 등과 어울려 지내다가 1931년 초에 귀국했다.¹³⁾ 도

13) 김용직, 「간추린 임화의 생애」, 『임화문학연구』(새미, 1999), 282-284쪽. 임화의 정확한 독일 시기가 1929년 7월임은 그의 수필 「현해탄(玄海灘)의 백일몽(白日夢) (9)」(『조선일보』, 1934. 7. 13)에 “일천구백이십구년, 내가 아홉 나이 스물두 살 때 지금으로부터 여섯 해 전 七월 어느 몹시 더운 날 아침에 나는 이천돈짜리 관부연락선 위에 삼등손님이 되었든 일이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김기진과 박영희가 마련해준 비용으로 독일하게 되었음을 김팔봉, 「카프문학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깊은샘, 1999), 10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 후 귀국하기까지 임화가 현해탄을 얼마나 자주 넘나들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1931년 귀국 이후에 그가 다시 도일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임화는 현해탄을 자주 넘나들지는 않았지만, 시 「눈물의 해협(海峽)」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현해탄은 임화에게 “바다의 이상한 운명”으로 심중과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시집을 통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시집 『현해탄』의 「후서(後書)」를 보자.

현해탄이란 제(題) 아래 근대 조선의 역사적 생활과 인연 깊은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각, 느낌 등을 약 이삼십 편 되는 작품으로 써서 한 책을 만들어볼까 하였다.

이 가운데 맨 뒤에 실린 바다가 많이 나오는 일련의 작품이 그것이다.

임화는 현해탄이 “근대 조선의 역사적 생활과 인연 깊은 그 바다”라고 했다. 현해탄을 일본 유학을 위한 배길로서 단순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생활” 즉 역사현실의 차원에서 갖는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느꼈던 바를 시작품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윤식은 일찍이 임화의 시집 『현해탄』을 대상으로 현해탄 제재의 시작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시 한국 지식인의 서구편향과 그것이 일본을 통한 왜곡을 포함하면서 이 양자의 한계와 독소적 요소를 판별한 능력을 스스로 잃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¹⁴⁾으로 ‘현해탄 complex’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임화의 현해탄 시편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읽은 바 있다. 말하자면 김윤식은 임화가 식민지 지식인이 당면했던 조선의 근대화 내지 진보적 개혁의 표준을 서구로부터 일본에 유입된 지식, 즉 사회주의 사상에 두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함으로써 “한국문학에 서구취향의 너울을 쓰고 소박 건강한 자연적 의식을 압살함”에 공헌했다는 것이다.¹⁵⁾ 당시 김윤식이 서구와 일본편향의 추종적 태

14) 김윤식, 「임화연구」,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73), 558-559쪽.

도뿐만 아니라 좌편향의 사회주의 문학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을 가하면서 그 중심에 임화의 문학, 특히 현해탄의 시편을 두었던 것이다. 물론 ‘현해탄 complex’는 임화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지용, 김기림의 경우, “현해탄 연락선과 바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시풍”도 서구편향과 일본을 통한 왜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임화의 ‘현해탄 complex’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현해탄 complex’는 일제하 지식인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대륙적 이미지’로 현실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의식이나 ‘국내적 심상구조’로서 순수하게 고양된 민족의식, 또는 민족문학의 전통과 연결되어야 바람직하다¹⁵⁾는 전제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닌다고 본 것은 타당한 일면을 지닌다.

그러나 임화의 현해탄 시편들을 대상으로 김윤식이 명명한 ‘현해탄 complex’는 카프 해체 이후 임화가 취했던 현실 타협적 태도와 상황을 그의 시에 덧씌움으로써 비판적 독서를 이끌어가고자 했다고 본다. 여기에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 주체자의 선입견이나 독단이 작용하기 쉽고, 상황 논리로 본 연역적 해석의 오류가 내포될 개연성이 많다. 아울러 이 ‘현해탄 complex’는 1970년대 초반 김윤식 자신의 학문적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임화의 이식사관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¹⁷⁾될 수 있다. 임화의 현해탄 시편은 해석 주체자의 선입견이나 상황 논리를 덧씌워 연역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오류를 가능한 배제하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해석을 요청한다.

그러면 임화의 시집 『현해탄』에서 현해탄 시편의 첫 자리에 있는 작

15) 김윤식, 위의 책, 561쪽.

16) 김윤식, 위의 책, 560쪽.

17) 김윤식 비평에 나타난 ‘현해탄 complex’가 1970년대 이래 축적된 ‘내재적 발전론’을 고려한 토대 위에서 주체의 정립을 위한 타자와의 대결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임화의 이식사관의 한계를 지적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있다. 이명원, 「김윤식 비평에 나타난 ‘현해탄 콤플렉스’ 비판」, 『전농어문연구』 제11집(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1999), 247-274쪽.

품인 「해협(海峽)의 로맨티시즘」을 보자.

바다는 잘 육착한 몸을 뒤척인다.
海峽 밑 잠자리는 꽤 거친 모양이다.

맑게 갠 새파란 하늘
높다란 해가 어느새 한낮의 카브를 쥐는다.
물새가 멀리 날아가는 곳,
釜山 埠頭는 벌써 아득한 故鄕의 浦口인가!

그의 발 밑,
하늘보다도 푸른 바다,
太陽이 기름처럼 풀려,
뱃전을 치고 뒤로 흘러 가니,
웃듯이 머리칼처럼 바람에 훑날린다.

아마 그는
日本列島の 긴 그림자를 바라보는게다.
흰 얼굴에는 분명히
가슴의 「로맨티시즘」이 물결치고 있다.

藝術, 學問, 움직일 수 없는 眞理……
그의 꿈꾸는 思想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東京,
모든 것을 배워 모든 것을 익혀,
다시 이 바다 물결 위에 올랐을 때,
나는 슬픈 故鄕의 한 밤,
해보다도 밝게 타는 별이 되리라.
靑年の 가슴은 바다보다 더 설레었다.

— 「해협(海峽)의 로맨티시즘」에서

위의 시는 처음 ‘현해탄(玄海灘)’이란 이름으로 『중앙』(1936. 3)에 발표되었으나, 시집에 수록되면서 제목이 바뀌었다. 특별히 ‘로맨티시즘’이란

용어를 붙인 까닭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부산 부두에서 연락선을 타고 일본열도를 향해 가는 청년의 부푼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지용의 시 「선취」와 흡사한 낭만적 세계인식을 읽을 수 있다. 맑게 갠 새파란 하늘, “한낮의 카브를 꺾는” 즉 정오를 지나는 높은 태양, 멀리 날아가는 물새의 풍경이 명랑한 분위기를 형성하듯이, 시적 화자의 마음 역시 명랑함에 기대가 부풀어 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바라보는 “흰 얼굴”의 지식인 화자는 “가슴의 「로맨티시즘」이 물결치고 있다”고 하며, 3인칭의 전지적 시점에서 스스로를 객체처럼 대상화시키고 있다.¹⁸⁾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는 “가슴의 「로맨티시즘」”은 정지용의 시 「선취」의 화자가 가졌던 낙관적 세계인식과 그에 따른 들뜬 감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선취」에서 금단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연애의 감정에 젖는 화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슴의 「로맨티시즘」”은 식민지 조선의 한 청년 지식인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화가 현해탄의 뱃길에 올랐던 당시 꿈꾸었던 사상,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眞理”를 찾는 학문과 예술로 표명된 것이지만,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표적이 바로 사회주의의 이념과 이상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슬픈 故郷의 한 밤”으로 표현된 식민지 조선의 어두운 현실에서 그 현실을 비추는 “해보다 밝게 타는 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부푼 기대감으로 현해탄 뱃길에 올랐던 것이다. “靑年の 가슴은 바다보다 더 설렘었다”고 표현한 부분은 바로 기대와 설렘에 부풀어 있던 청년 지식인, 곧 임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18) 김정훈은 임화의 현해탄 시에서 시의 화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서정적 주인공의 생각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한편 현해탄의 공간인식이 이중적으로 드러난다고 파악한 바 있다. 김정훈, 「임화 시 연구」(국학자료원, 2001), 176-182쪽.

다음 시 「현해탄」은 앞의 작품처럼 청년 지식인을 화자로 삼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는 청년의 당시 심정이 아니라, 과거의 현해탄 체험을 생생한 기억을 통해 재생시키면서 현재의 심정을 표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길이가 긴 작품이지만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보자.

이 바다 물결은
예부터 높다.

그렇지만 우리 靑年들은
두려움보다 勇氣가 앞섰다.
山불이
어린 시슴들을
거친 들로 내몰은게다.

對馬島를 지나면
한 가닥 水平線 밖엔 티끌 한 점 안 보인다.
이곳에 太平洋 바다 거센 물결과
南進해온 大陸의 北風이 마주친다.

몬프랑보다 더 높은 파도,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亞細亞의 하늘엔 별빛마저 흐리고,
가끔 半島엔 붉은 信號燈이 내어걸린다.

아무리기로 靑年들이
平安이나 幸福을 求하여,
이 바다 險한 물결 위에 올랐겠는가?

……(중략)……

청년들은 늘
希望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중략)……

그러나 인제

낮선 물과 바람과 빗발에

흰 얼굴은 찌들고

무거운 任務는

고든 잔등을 농군처럼 굽혔다.

나는 이 바다 위

꽃잎처럼 흩어진

몇 사람의 가여운 이름을 안다.

어떤 사람은 건너간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갔다.

어떤 사람은 永永 生死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아픈 패북(敗北)에 울었다.

—그중에 希望과 결의와 자랑을 욕되게도 내어판 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코 싶지는 않다.

오로지 바다보다도 모진

大陸의 삭풍 가운데

한결같이 사내다움던

모든 靑年들의 名譽와 더불어

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비록 靑春의 즐거움과 希望을

모두다 땅속 깊이 파묻는

悲痛한 埋葬의 날일지라도,

한번 玄海灘은 靑年들의 눈앞에,

검은 喪帳을 내린 일은 없었다.

……(중략)……

三等船室 밑 깊은 속
 찌든 寢床에도 어머니들 눈물이 배었고,
 흐린 불빛에도 아버지들 한숨이 어리었다.
 어버이를 잃은 어린 아이들의
 아프고 쓰린 우름에
 대체 어떤 罪가 있었는가?
 나는 울음 소리를 무찌른
 외방 말을 歷歷히 기억하고 있다.

오오! 玄海灘은, 玄海灘은,
 우리들의 運命과 더불어
 永久히 잊을 수 없는 바다이다.
 — 「현해탄」에서

시 「해협의 로맨티시즘」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믿었던 사회주의의 학문과 예술을 배우고자 현해탄의 뱃길에 오른 화자 자신의 내면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시는 화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외부세계의 현실, 즉 당대의 식민지 현실과 현해탄을 건너는 연락선과 그 뱃길의 광경에 더 비중을 두면서 그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처음부터 “이 바다 물결은/예부터 높다”고 하여 현해탄이 역사의 거친 격랑을 이루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해탄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처음부터 부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현해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두려움보다 용기”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행동이 사실은 자의적인 판단보다 타의적인 상황인 당대 식민지의 현실에 대한 불만의식에서 기인되었음을 말하는 대목에서 한층 뚜렷이 드러난다. 그것은 “山불이/어린 사슴들을/거친 들로 내몰은 계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여기서 식민지의 암담하고 불안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성찰을 읽을 수 있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의식은 “가끔 반도엔 붉은 신호등이

내어걸린다”란 구절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의 현해탄 행이 결코 개인적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靑年들은 늘/希望을 안고 건너가/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때의 희망과 결의는 식민지 현실의 모순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개혁의지와 연결된 것이었겠지만, “무거운 任務는/고든 잔등을 농군처럼 굽혔다”고 했듯이,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가혹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현실의 가혹한 정황이 “어떤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구절의 연속을 통해 연설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건너간채 돌아오지 않았다./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갔다./어떤 사람은 永永 生死도 모른다./어떤 사람은 아픈 패북(敗北)에 울었다.”는 구절들이 그것이다. 현해탄의 행로가 삶의 희망만을 좇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별과 죽음, 그리고 패배의 쓰라린 고통을 동반하는 길임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있다. 그런데 현해탄의 행로가 다 다르게 되는 현실의 냉혹함에 대한 성찰은 현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태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中에 希望과 결의와 자량을 욕되게도 내어판 이가 있다면,/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코 싶지는 않다.”고 덧붙이는 말이 이점을 반증한다. 시의 화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말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과 결의와 자량을 가졌던 이들이 하나 둘 변절해가는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한 망각의 욕망은 일종의 자포자기적, 현실도피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35년 카프 해산계를 제출한 이후 임화의 정신적 충격이 자칫 정신적 공황 상태로 비약될 수 있는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임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적으로 재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이 시에서 현해탄을 건너는 청년들의 임무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玄海灘은靑年들의 눈앞에/검은 甕帳을 내린 일은 없었다”고 한 구절에서 청년의 희망과 기대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중단 없이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애써 의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시의 화자는 현해탄

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대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화자가 대면하는 운명적 관계의 현해탄은 “바다란 이상한 운명”으로 표명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한 운명”이란 우리 민족 전체가 대면해서 이겨나가야 할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과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현실에 대한 운명적 대응의 태도에는 표면적 명분과 대의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저변에 놓인 현실인식은 계급 모순보다 민족 모순의 현실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三等船室 밑 깊은 속/……(중략)……/나는 울음 소리를 무찌른/외방 말을 歷歷히 기억하고 있다.”에서 보듯이, 현해탄의 뱃길에서 인식되는 모순의 현실은 조선인 대 일본인, 조선어 대 일본어의 대립적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해탄이 “우리들의 運命과 더불어/永久히 잊을 수 없는 바다”라고 표명한 것도 이러한 민족 모순의 현실에 대한 입화의 성찰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입화의 현해탄 시편에서 현해탄은 식민지 지식인이 암담한 현실을 성찰하면서 운명처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의 화자는 이 현해탄의 뱃길에 오르며 식민지 현실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진보적 지식을 사회주의에서 구하고자 했던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식민지 현실의 문제를 민족 모순에서 파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의 주체자로 서고자 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입화 시에서 현해탄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체의 자기성찰을 진지하게 도모했던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민족 이산(離散, Diaspora)의 경험적 현장과 역사 의식

(1) 노동이민의 비극적 행로와 민족 파탄의 현실: 김석송 등의 유민시 일제 강점기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연락선에는 근대적 지

19) 김정훈, 앞의 책, 180쪽.

식과 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고자 유학을 떠나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으로 살 길을 찾아 노동이민을 떠나는 슬한 조선인들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해탄은 민족 이산의 비극적 행로였다.

그런데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의 노동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농촌의 농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다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마수에 걸려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거나, 지주의 착취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곤경에서 신음하던 소작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농촌의 궁핍한 현실 때문에 일본인 노무알선업자의 감언이설에 쉽게 빠져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연락선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동경특파원(1923. 5-1924. 5)²⁰⁾을 지낸 바 있는 김석송 [金石松: 본명 김형원(金炯元), 1900-?] 은 현해탄을 건너가는 이들 노동이민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들추는 시 「연락선(連絡船)에서」를 다음과 같이 썼다.

連絡船의 三等室
한구석에 모여안즌
흰옷입은 사람들아

머리에는 手巾쓰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말도쓰도 못하면서
맨손쥐고 어대가나

궤딱지의 집이나마
倭債로 빼앗겼나
薄土나마 논밭때기

20) 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2001), 24-38쪽 참조.

移民에게 빼앗겼나

너의고장 네땅에서
이것저것 다빼앗긴
네身勢도 可憐하나
가는곳이 어딴메노

- 「연락선(連絡船)에서」에서²¹⁾

위의 시는 2음보의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 노래조로 불리기 쉬운 민요시의 형태로 창작된 작품이다.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로 볼 작품이 아니다. 부관연락선의 삼등실에 실려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떠나는 노동이민자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쓰도 못하면서/맨손쥐고 어대가나”에서처럼 일본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부관연락선을 타고 가는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의 모습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부터 비롯된 궁핍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케딱지의 집이나마/倭債로 빼앗겼나/薄土나마 논밭떼기/移民에게 빼앗겼나”라고 하여, 노동이민자들의 궁핍이 일본인 이민자를 위한 동양척식회사의 농지 강탈과 일본인 지주의 수탈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민족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일제에게 집과 논밭을 빼앗기고도 생존을 위해 도리어 일본으로 떠나는 노동이민자들의 행로 자체가 민족사의 비극적 아이러니이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제국대학에 유학하여 사회과학을 전공한 바 있는 정노풍 [鄭蘆風; 본명 정철(鄭哲), 1903-?] ²²⁾은 특히 현해탄을 건너는 노동이민자들의 비극적 행로를 집중적으로 포착하여 시에 올렸다. 「연락선(連

21) 『동아일보』(1923. 6. 17).

22) 박경수, 「정노풍의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론」,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도서출판 역락, 2004), 531-535쪽.

絡船) 리뷰」란 큰 제목 아래 발표된 다음 두 작품을 보자.

- ① 련락선 배간에다 몸을던진채
정처업시 떠나는 집일흔아이
玄海灘 험한물결 배사장을칠때
외로이 흔들리는 의지업는몸
눈물이 흘립니다 고향그립어

오래서 가는길은 차저나가고
정한곳 가는길은 맘이나편치
오라는 길아니오 같길아닌데
목숨이 원수라서 떠나가는길
눈물이 흘립니다 고향그립어
- 「고향 그립어」에서

- ② 昌慶丸 잡아타고 외고장갈땐
원수놈의 돈돈 돈벌러갓지
내오늘날 또다시 이배를타고
집차저서 오건만 돈못벌었네

떠갈때도 빈빈손 올때도빈손
열열번 또퍼본들 힘업는빈손
무엇하러 외고장 내떠났든고
후회한들 무어리 살려고간걸

천대라니 말마소 눈물이라니
이내힌 고이적삼 얼롱에차네
외거랑이 이신세로 또쫓겨온들
내집인들 잇스랴 이놈의살이
- 「돈 못 벌었네」 전문²³⁾

23) ①, ②는 『동아일보』(1929. 11. 5).

두 작품 모두 7·5조를 중심으로 한 3음보 리듬과 4행 또는 5행의 반복 구문을 취하고 있어 형태적 탄력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형상화된 시적 현실은 현해탄을 배경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①의 시는 연락선에 몸을 싣고 일본을 떠나는 노동이민자를 화자로 삼고, ②는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연락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 노동자를 화자로 했다. 이처럼 두 시의 화자는 노동이민과 귀향노동이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현해탄을 건너가든 건너오든 두 화자의 행로가 비극적이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집을 잃고 정처 없이 일본으로 떠나는 ①의 화자는 “목숨이 원수라서 떠나는 길”에서 막연한 삶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향에 대한 슬픔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②의 화자 역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 노동으로 품팔이를 했지만, “떠갈때도 빈빈손 올때도 빈손”이라 했듯, 천대와 멸시를 받고 결인 신세가 된 처지에 한탄의 눈물만 흘리다 도리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일본으로 떠난 노동이민자들이 차별적 학대와 저임금 등으로 ‘산지옥’과 같은 노동조건에서 시달리다 다시 빈털터리로 귀환하는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해탄은 노동이민자나 귀향이민자에게 앞길이 막막한 비극적 행로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다음 시 「집 일흔 아이」는 현해탄의 비극적 행로를 한층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미칠듯 슬어질듯 엽푸러질듯
 물결따라 지향엽시 떠도는아희
 젓먹든 힘다쏘다 쌍고동뒤풀
 트는비명 이내비명 이결에비명

지향일흔 이배마지 조와라할이
 이천지 넓다한들 그누굴런가

외고장 떠나본들 북간도간들
천대박대 눈물인저 집일흔야회

……(중략)……

풍랑비고 외엇치는 저고동소리
뛰뛰뛰 그리소리뿐 우리군호가
눈물짓는 동포네야 손마조잡소
슬어진들 살아난들 한목숨인걸
- 「집 일흔 야회」 중에서²⁴⁾

시의 형태상 앞의 작품들과 동일한 모습을 띤 이 작품은 현해탄의 험한 물결에 “미칠듯 슬어질듯 엎푸러질듯”하는 뱃멀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집 잃은 아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집 잃은 아이’의 처지는 곧 민족 전체의 처지와 동일시되어 있다. “물결따라 지향업시 떠도는야회”는 민족 이산의 모습을 전형화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뱃멀미로 내지르는 “이내비명”은 “이결에비명”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운명체로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 시는 민족 이산의 고통스런 현실을 비극적 상황으로만 몰아가지 않는다. “눈물짓는 동포네야 손마조잡소/슬어진들 살아난들 한목숨인걸”이라 했듯이,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상호 확인하면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갔던 사람들의 여러 사연과 심정을 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시 작품이 심훈 [沈熏: 본명 심대섭(沈大燮), 1901-1936] 의 「현해탄(玄海灘)」이다. 그는 1927년 초부터 약 6개월간 영화공부를 위해 독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⁵⁾ 이 작품은 바로 당시 현해탄을 건너며 관부연락선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의 여러 사연과 함께

24) 『조선일보』(1929. 11. 15).

25)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상)』(동화출판공사, 1975), 197쪽 참조.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민족 이산의 비참한 광경과 조국 상실의 현실을 착잡한 심경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⁶⁾ 우선 작품을 보자.

달밤에 玄海灘을 건너며
 甲板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몇해 전 이 바다 어복(魚腹)에 생목숨을 던진
 青春 男女의 얼굴이 환등(幻燈) 같이 떠오른다.
 값 비싼 오뇌(懊惱)에 백랍(白蠟) 같이蒼白한 인테리의 얼굴
 虛榮에 찌들은 女流藝術家的 풀어 해친 머리털,
 서로 얼싸안고 물우에서 소용도리를 한다.

바다우에 바람이 일고 물결은 거칠어진다,
 憂國志士의 한숨은 저 바람에 몇 번이나 스치고
 그들의 불타는 가슴 속에서 줄아 붙는 눈물은
 몇 번이나 비에 섞여 이 바다우에 뿌렸던가
 그 동안에 얼마나 數 많은 물건너 사람들은
 「人生到處有青山」을 부르며 새땅으로 건너 왔던가.

甲板위에 섰자니 시름이 겨워
 船室로 내려가니 「漫然渡航」의 白衣群이다,
 발가락을 억지로 꺾여 다비를 피고
 상투 갈른 자리에 빙거지를 뒤집어 쓴 꼴
 먹다가 버린 벤또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강아지처럼 활아 먹는 어린것들!

26) 이 작품의 끝에 창작시기를 “一九二六. 二”라고 부기하고 있으나, 이는 1928년 2월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1연에서 “몇해 전 이 바다 어복(魚腹)에 생목숨을 던진/青春 男女의 얼굴이 환등(幻燈) 같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 1926년 8월 4일 김우진과 윤심덕이 현해탄에 투신한 사건을 떠올리는 표현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우진과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26년 2월에 이 작품을 썼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이 사건이 일어난 1926년으로부터 햇수로 2년이 되는 1928년에 이 시를 쓰면서 “몇해 전”이라고 당시의 사건을 떠올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同胞의 꼴을 똑바루 볼수 없어
 다시금 甲板위로 뛰어 올라서
 물속에 視線을 잠그고 脉 없이 섰자니
 달빛에 明鏡 같은 玄海灘 우에
 朝鮮의 얼굴이 떠오른다!
 너무나 또렷하게 朝鮮의 얼굴이 떠오른다.
 눈 돌곳없어 마음 붙일곳 없어
 이속도록 하늘의 별數만 세노라.

- 「현해탄(玄海灘)」 전문²⁷⁾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현해탄을 건너며 가장 먼저 김우진과 윤심덕이 1926년 8월 4일 현해탄에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을 떠올린다. 촉망받던 극작가이지만 유부남이었던 김우진과 <사의 찬미>를 부른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이자 배우로 활달한 성격을 가진 윤심덕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현해탄에 목숨을 던진 사건을 매우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두 연인을 “값 비싼 오뇌(懊惱)에 백랍(白蠟) 같이蒼白한 인테리”와 “虛榮에 찌들은 女流藝術家”로 묘사한 대목에서 비판적 시선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시의 2연부터 시적 화자는 부정적 잔상과 연결된 잡념을 정리하고 진지한 현실인식의 태도로 전환한다. 현해탄의 바람과 물결을 우국지사 의 ‘한숨’과 ‘눈물’과 동일시하며, 그 한숨과 눈물이 그칠 사이도 없이 당시 조선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새 땅인 일본으로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연락선에 몸을 실은 조선 이민자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발가락을 억지로 채여 다비를 피고/상투 잘른 자리에 병거지를 뒤집어 쓴 꼴”이고 “먹다가 버린 벤또밥을 영금영금 기어다니며/강아지처럼 훑아 먹는 어린것들”로 극한의 가난과 궁핍 때문에 인간 이하의 행동도 서슴지 않는 참담한 현실로 내몰

27) 심훈, 『그날이 오면』(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133-135쪽.

려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시인이 목도하고 있는 연락선 선실의 비참한 모습이 “同胞의 꼴” 곧 한민족의 모습이며, 그것이 또한 ‘조선의 얼굴’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이상 김석송, 정노풍, 심훈의 유민시 작품들에서 보듯, 이들 시는 당시 조선 노동이민자들의 도일과 귀향을 목도하는 도정으로서 현해탄을 설정하고, 이 현해탄을 오가는 연락선의 현장으로부터 민족 이산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함으로써 민족 파탄의 역사현실에 대한 진지한 자각과 성찰을 보여주었다. 현해탄 체험의 시편들이 이렇듯 경험적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와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학사적 측면에서 민족시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들 시가 당대 역사현실에 대한 증언을 진지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재일 노동이민의 비극적 삶과 민족 차별의 현실: 재일 한국인의 일어서

민족 이산의 비극과 그 고통스런 현실은 현해탄의 뱃길 위에서만 목도되었던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문단에서 일본어로 발표된 재일 한국인의 시 작품들 중에서 현해탄 체험을 반영한 김병호, 백철, 김용제 등의 시는 현해탄을 건너간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이 겪는 민족 차별과 생활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논의한 시작품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²⁸⁾

먼저 1925년부터 일본의 시전문지인 『일본시인(日本詩人)』에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기도 했던 김병호(金炳昊: 1904~1959)는 1929년 3월 『전

28) 안용만의 시 「강동의 품 -생활의 강 '아라가와'여」(『조선중앙일보』, 1935. 1. 1)는 재일 한국인의 일어서 작품은 아니지만, 현해탄을 건너간 재일 한국인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동경의 강동지구에 위치한 당시 조선인 특수부락의 힘든 삶의 현실을 통해 서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논지의 전개상 안용만의 시는 제외하고 재일 한국인 일어서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기(戰旗)』에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일러시인 <나는야 조선인이다(おりやあ朝鮮人だ)>를 발표했다.²⁹⁾ 작품을 보자.

나는야- 조선인이다!/나라도 없으면 돈도 없다/즐거운 일이라곤 물론
없지만/애처로운 눈물도 없애버렸다//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일조
융화(日朝融和)란 어떤 것인가!/우리들은 너무나 속고 있다/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은 누군가가/조상 대대로 전해온 논밭은 누군가가/결신들린
듯이 아아가 버렸다/지금은 몸동아리 하나뿐인 이 몸이 남아있을 뿐이
다//너희들은 일하라고만 말하는 것인가!/너희들은 우리들이 게으름이
라고 피우고 있다는 것인가/도대체 일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리운 고향의 산천을 뒤로하고/북으로는 남만주 동으로는 일본으로/밀
러가는 여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나조차 몸을 적국(敵國)에 옮겨
갈 수밖에 없는 마음/너희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어디로 갈 곳도
없고/그저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영주할 땅이 있다고 기어이 믿고야
마는 마음/오늘도 오늘도 수백의 백의인(白衣人)을 태웠다/관부연락
선(關釜連絡船)이 뚱- 소리를 낸다/마지막이 막장 끝인가 탄광에서 종
말을 맞이하더라도

- <나는야 조선인이다(おりやあ朝鮮人だ)>에서³⁰⁾

29) 박경수 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국학자료원, 2004)에서 김병호의 생애와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논의하고, 관련 작품을 모아 공개했다.

30) 『戰旗』(1929. 3). 전체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おりやー朝鮮人だ!/國もなければ 金もない/楽しい事つて もちろんないのだが/哀れをこふ涙もかたづけてしまったんだ//道徳がなんだ!/日鮮融和つて 何物だ/おれらはあまりにだまされすぎてゐるんだ//先代から住みなれた家は何者が/祖先からつたへてきた田畑は何者が/むさぼり取つてしまつたんだ!/今は裸一本の此の身が残つてゐるばかりだ/君等は働けといふのか!/君等はわしらが怠けてゐるとでもいふのか/だいたい働く所がないのをどうするんだ!//なつかしい故郷の山川を後にして/北は南満州東は日本へと/押流されるヨボたちをどうせうといふのか/我と我が身を敵國に運び行く心持を/君等は知る事が出来ないであらう!/何處へ行くとなてもなく/たゞたゞ幸あれかしと願ふ心が/永住の地好しとあせる心が/今日も今日とて數百の白衣人たちを乗せた/關釜聯絡船がポーとなる!/末は場末が 炭坑で果てるのちやけれど//日本人はおれたちのXちや/しかし全日本の無産者はおれらの味方ちや/おれら い

이 시는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적 화자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선언은 곧 바로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대해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로 바뀐다. “나라도 없으면 돈도 없고/즐거운 일이라곤 물론 없지만/애처로운 눈물까지 없애버렸다”고 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무산계급의 상황으로 내몰린 현실을 비장한 어조(tone)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도대체 일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까지의 구절에서 보듯, 일제의 속임수로 집과 논밭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신세로 전락하여 일도 없이 유랑민으로 떠도는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이 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일제를 향해 바로 겨냥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에서 분명히 ‘적국(敵國)’으로 표명된 일제에 의해 무산계급의 상황으로 전락하면서도 살기 위해 도리어 적국인 일본으로 떠나는 민족사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만나게 된다. “나조차 몸을 적국(敵國)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너희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의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적국 일본으로의 도일이 생존을 위한 극단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관부연락선을 타고 떠나는 노동이민자들의 뱃길은 행복을 염원하는 기대만 있을 뿐, 암담한 미래만 놓인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막장 끝인가 탄광에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라는 구절은 삶에 대한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제의 비인간적 착취와 수탈이 이민지 일본에서도 자행될 것이라는 탄식과 비감의 목소리로 들린다. 오히려 이 시가 일본문단에 발표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피압박 민족으로서 느끼는 분노와 저항의 감정을 더욱 호소력

つくしみ助けてくれるのも/全日本のプロレタリアちや/君等の思つてゐることを
我等も思つてゐるし/君等のなさんとすることを/わし等もなし通すであらう!/同
志たち手を握つてくれたまへ/そして一仕事しつかり頼むべ!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해탄 체험을 반영한 이 일어서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이민지 일본에서 겪는 노동이민자들의 고통을 한층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본다.

1927년 일본 동경으로 떠나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유학하여 졸업을 할 무렵부터 1931년 10월 귀국하기까지 상당한 일어서 작품을 발표한 백철(白鐵 1908~1985)³¹⁾의 일어서 중에서도 현해탄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 <그들이라도……(彼等だって……)>가 해당 작품인데, 이 시는 현해탄을 건너간 독일 노동이민자들이 겪는 일제의 민족 차별과 폭력, 착취와 탄압, 강제 송환 등 온갖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작품을 보자.

매일-/저 저주받은 부산항에서 연락선의 기적이 뽀-하고 울린다/그 때마다 백 명도 넘는 흰옷 입은 노동자들이 배에 올라타고 있다/그들은 9시간 후에 시모노세키에 줄줄이 상륙한다./그래서 너희들은 곤란하다고 말하는가./그들을 멈추게 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초조해 한다./아니, 사실, 너희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그래 여행권이다, 증찰증서다……하고/하나라도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고함치고, 때리고, 발로 찬다./(실제 저 부산부두에 서 있는 xx만큼 사람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다/(포기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 있다)/몇 번이고 베어도 묵묵히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처럼/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현해탄을 넘는다./그것이 지금에는/가는 곳마다 길가에 보이는 잡초처럼/일본의 어느 시골에서도 삼삼오오 물려있는 때문은 흰옷이 눈에 띈다./그래서 더 어떻게 할 방책이 없노라고 너희들은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다./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한 수단을 다 사용한다./2천명의 조선 노동자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고/당당하게 위협을 주듯이 너희들의 신문에 실려 있다./xx의 정치가들이여/일찍이 너희들의 동료들은 잘도 xx을 등그렇게 말아 두었다/그 이후 그들의 손에 의해 그곳에

31) 박경수, 「백철의 일본에서의 문학활동 연구」, 『한국 시가의 사상적 모색』(부산: 실현이동영박사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8), 582-583쪽.

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문화통치이니 산업진흥이니 입으로 떠들었지만/그 모두가 착취와 탄압의 수단이 아니었던가/온갖 속임수를 다 부려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것이다/그들은 말린 정어리처럼 졸라맨 채로 짜내어 국물이 되었다/지금 이미 그들의 손에는 경작해야 할 논밭이 남아있지 않다/정말 모든 농촌이 빈궁화되어 있는 것이다/그들은 중농에서 소작농으로 그리고 자유노동자로/급격한 비탈길을 밟을 여유도 없이 곤두박질해 떨어졌다/그들 일부는 만주로, 일부는 일본으로 떠나갔다/꼭 참고 지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을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이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아아 xx의 정치가들이여/너희들에게도 눈물이 있고 피가 있을 것이다/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너희들 쪽은 사정이 통할지 모르지만/강제로 되돌아가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다/굶주림과 죽음!/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가/너희들은 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양식과 옷가지도 빼앗은 후에/그들의 생생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한다/하지만, 기억하는가/아무리 물고기같이 순종하는 그들이라도/그렇다, 아무리 무지한 그들이라도 그렇게 쉽게 죽어가겠는가—/그들도 여차하면 땅을 박차고 뛰어오른다/이제 두고 보라/그들의 분노와 복수에 타오르는 주먹이/너희들의 거만한 모습 앞에 들이닥칠 날이 올 것이다.

- <그들이라도……(彼等だって……)> 전문³²⁾

32) 『地上樂園』(1930. 1). 인용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毎日一/あの呪はれた釜山港で連絡船の汽笛がボート鳴る/その度ごとに百名も以上の白衣の労働者が乗込むのだ/それが九時間の後には下關でゾロゾロと上陸する/それで君等は困ると云ふのだらう/何んとかせき止めてやる方法はなきかとあせつてる/いや、事實、君等はあらゆる手段でそれを防禦しつつある/—それ旅行券だ、證察證明書だ……と/一つでも條件が備らないと、ドナル、ナグル、ケル。(實際あの釜山埠頭に立つてるXXほど人非人はない)/だが、彼等は決してそれ位であきらめやしないのだ/(あきらめるためには彼等はあまり飢え過ぎてゐる)/幾度刈りとつても黙々と茂げ行く雑草のやうに/あらゆる防禦の柵をぬけ出て玄海灘を越えるのだ/それが今となると/到る所の道端に見えてる雑草のやうに/日本のどんな田舎にも三三五五のよごれた白衣が目につく/だから愈々策に窮したものだと君等はブンブンと怒つてる/さうなると君等のやりがちな卑劣極まる手段を使い出す/二千名の朝鮮労働者を朝鮮へ返す……と/堂々とおびやかすやうに 君等の新聞にかゝれてた//XXのセイ治家たちよ/嘗て君等の仲間はずまいぐあいにXXを丸めて置いた/

위의 시는 일제가 일본 내지인의 실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 노동이민자 2천명을 강제 송환한 사건을 취재한 작품으로 매우 사실적인 서술 맥락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위 작품에서 주목되는 바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송환사건을 시인이 어떤 서술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시인의 서술 관점은 재일 조선인 노동이민자의 편에 있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간적 행위를 고발하고, 식민지 지배정책의 허위와 모순을 예리하게 들추는 한편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의 시는 크게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서술의 맥락도 이에 따라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로 현해탄을 건너온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이 인간 이하의 온갖 대접과 고초를 겪는 상황과 이들이 다시 강제 송환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본 이민이 근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과 착취의 결과로

それ以來 彼等の手によつてそこではナニが行はれたか/文化統治とか 産業
 ショーレイとか 口では云つてたが/それ孰れもがサクシュとグンアツの手段でない
 ものがあつた/あらゆるギマンを盡してアリツタケのものを吸ひとつたのだ/彼
 等はカツオブシのやうにしめるがまゝにしぼられダシになつた/今はもう彼等の
 手には耕すべき田も畑も残つてはゐない/ほんとうに、どこの農村も如何に貧窮
 化されてることだらう/彼等は中農より小作人へそれから自由労働者へ/急激なる
 坂を踏み止るいとまもなくころび落ちた/それが一部分は満洲へ、他は日本へと
 溢れだす/ちつとしてゐようともしてゐようがなくて、/だのに、それを君等は又
 あべこべに押し返すと云ふのだ/二千名と云ふ多數の労働者を。//あゝXXのセイ
 治家たちよ/君等にも涙があり、血があるハズだ/押し返す君等の方は都合がいい
 かも知れないが/押し返される方ではイツタイどうなると云ふのだ/ウエジニ!/そ
 れは目に見えてる事實ではないか/君等は彼等から土地を奪ひ食と服とを奪つた
 後に/彼等のナマナましい生命迄も奪ひとらうとするのだ/だが、オボエテゐるの
 がいゝ/幾らメジカのやうに従順なる彼等だつて/さうだ、幾ら無智なる彼等だつ
 てそんなにやすやすと死んで/行くものか/彼等だつて いざとなれば地を蹴つて
 はね起きるんだ/今に見ろ/彼等のファンヌとフクシューに燃えあがるこぶしが/君
 等の太つばらにヂリヂリと迫る日が来るのだ。”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재일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이 핍박과 착취를 일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 3부분에서 첫째 부분은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이 도항을 위해 겪는 처절한 상황과 강제송환의 상황을 현재적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둘째 부분은 그 근원적 원인이 되는 식민지 수탈과 착취의 과거 행위를, 그리고 셋째 부분은 그럼에도 현실의 질곡을 넘어서기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인은 이처럼 위의 시를 통해 재일 한국인 노동이민자들의 현해탄 도항 현실과 강제송환사건을 연쇄적 고리로 삼아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간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정책이 갖는 허위와 모순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일제에 맞서는 민족적 대립과 저항이 기본적으로 계급적 착취와 탄압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테면 “문화통치이니 산업진흥이니 입으로 떠들었지만/그 모두가 착취와 탄압의 수단이 아니었던가”라거나,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양식과 옷까지도 빼앗은 후에/그들의 생생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여, 일본 제국주의 정책의 허위와 비인간적 착취를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의 비인간적 착취에 대하여 “아무리 물고기같이 순종하는 그들이라도/그렇다, 아무리 무지한 그들이라도 그렇게 쉽게 죽어가겠는가—/그들도 여차하면 땅을 박차고 뛰어오른다/이제 두고 보라/그들의 분노와 복수에 타오르는 주먹이/너희들의 거만한 모습 앞에 들이닥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여, 재일 조선인 노동이민자들이 일제의 정책에 대하여 갖는 불만과 분노를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하면서, 혁명적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해탄을 민족 이산의 비극이 놓인 체험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족적 투쟁의 상징적 현장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이 김용제(金龍濟, 1909~1994)의 시 <현해탄

(玄海灘)>이다. 그런데 앞의 백철의 시가 서술적 맥락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서정적 형상화에 실패한 결점을 안고 있다면, 김용제의 <현해탄>은 서술적 맥락과 서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시적 수완을 보여준다.

오오 현해탄의 거친 파도는/오늘밤도 차가운 비에 해면이 후드득거리면서/무겁고 괴로운 감정과 같이/어둠 속에서 넘실거리며/망해 가는 고국의 꽃(岬)을 깨물며/어슴푸레 하얀 물안개를 뿜으며 소리치고/멀리서 관부연락선이 뿌- 하고 신음하는데/바쁘게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순시함의 순경이 든 붉은 전등이/미친개의 눈동자같이 빛나고 있다/...(중략)../오오 수만의 동포가 이산의 눈물을 흘리며/지난해 조방(朝紡)의 스트라이크가 실패한/애처로운 투쟁에서 자매들의 상처투성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우리들의 바다! 현해탄은 출렁인다/오오 언제 저녁 바람이 잠잘지 모르는 현해탄의 거친 파도여!/우리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의 노래도/이 바다처럼 퍼져가며 파도처럼 높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 「3월 1일」을 xxx날로써 기념하라!

- <현해탄(玄海灘)>에서³³⁾

위의 시는 암담한 민족현실과 ‘조선방직공장’의 파업 실패라는 구체적 현실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현해탄의 어두운 밤의 상황과 적절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시적 형상화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시적 자아가 고국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오는 관부연락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단

33) 『プロレタリア詩』(1931. 3). 인용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おお 玄海灘の荒波は/今夜も氷雨に海づらを叩かれながら/重つ苦しい感情のやうに/闇の中に黒くうねり/亡び行く故國の岬を噛んでは/囚白い水煙を吐いてざわめく/遠く關釜連絡船のポーカ唸ねり/せわしいポンポン汽艇の巡警の赤電燈か/狂犬の瞳みたいにチラついてゐる//...(中略)../おお 數萬の同胞が離散の涙をそそぎ/去年「朝紡」のストライキに敗れた/いとしい戦ひの妹たちの傷だけけの歌がひびいた/俺たちの海! 玄海灘はざわめく/おお 何時も夕風を知らない玄海灘の荒波よ!/俺たちの苦しい戦ひの歌も/この海のやうに擴がりこの波のやうに高まるのを/知つてるか?/—「三・一」をXXXイキで記念せよ!”

히 무겁고 착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현해탄의 거친 파도”는 “망해가는 고국”의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고조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관부연락선의 기적소리마저 ‘신음’으로 들리게 된다. 이와 같이 현해탄은 고국의 막막한 미래와 동일시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여기에 일경 순시선의 경적과 “미친개의 눈동자”같은 감시의 눈초리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시는 암담하고 숨 막히는 민족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민족 이산의 ‘눈물’과 조선방직공장의 파업에 실패한 여직공들의 ‘노래’가 현해탄의 높은 파도를 이룬다고 하면서 일제에 대한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다.

물론 시적 자아는 민족 이산과 파업 실패로 이어지는 고국의 현실과 일제의 탄압 현실을 대립시키면서도 이를 민족 대 민족의 대립의 관점보다는 계급적 차별에 의한 대립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고국의 파멸과 민족 이산으로 이어지는 역사현실을 경직된 이념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해탄의 시적 형상화가 역사현실을 거시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 토대를 두면서 당대 역사현실의 중요한 현장과 매개의 공간적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달기 어렵다.

Ⅲ. 결론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시작품들 중에서 현해탄 체험을 중요한 제재로 삼아 형상화한 작품들을 조사하여, 이들 작품에서 현해탄 체험이 형상화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런데 현해탄이란 지리적 공간이 여러 다양한 개인적, 역사적 경험과 조우되면서 다양한 경험적 공간으로 시작품에 형상화되어 나타났음을 파악했다.

먼저 정지용의 시에서 현해탄은 청년시절 유학의 길에 오른 지식인이 낙관적 세계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표출하는 공간

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있었다. 이와 달리 임화의 현해탄 시편에서 현해탄은 식민지 지식인이 암담한 역사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적 공간이면서 역사의 주체자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보이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즉, 정지용의 시에서 현해탄은 주체 긍정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었다면, 임화의 시에서 현해탄은 주체의 자기성찰을 진지하게 도모했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한편 김석송, 정노풍, 심훈의 시에서 현해탄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당시 조선 노동이민자들의 도일과 귀향을 목도하는 도정으로서 현해탄을 설정하고, 이 현해탄을 오가는 연락선의 현장으로부터 민족 이산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함으로써 민족 파탄의 역사현실에 대한 진지한 자각과 성찰을 보여주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발표된 김병호, 백철, 김용제 등 재일 한국인의 일어서 작품들에서도 민족 이산의 비극적 공간으로 현해탄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일본 내지에서 겪는 재일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그리고 비인간적 착취와 민족 차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일제에 맞선 민족적 저항과 계급적 투쟁의식을 강하게 표명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현해탄을 그려내고자 했다.

사실 현해탄의 시편들을 역사적 문맥에서 검토하는 일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진지하게 도모하는 일이다. 이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해탄이란 용어는 이런 역사적 성찰을 동반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물론 현해탄의 의미를 과거적 상황과 관련된 의미로 고착시킬 필요는 없다.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피나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다.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자아를 정립하면서 역사현실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야 바람직한 관계 진전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현해탄 체험의 시적 형상화에 대한 문학적 관심도 과거의 역사에 대한 단순한 반추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해탄의 역사적 의미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재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제어 : 현해탄, 현해탄 콤플렉스, 정지용, 임화, 김석송, 정노풍, 심훈, 김병호, 백철, 김용제, 유민시, 민족 이산, 노동이민, 재일 한국인 일어서

참고문헌

-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깊은샘, 1999), 107쪽.
- 김용직, 『임화문학연구』(새미, 1999), 282-284쪽.
- 김윤식, 「임화연구」,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73), 558-561쪽.
- 김정훈, 『임화 시 연구』(국학자료원, 2001), 176-182쪽.
- 문덕수, 『한국 현대 모더니즘시 연구』(시문학사, 1981), 80쪽.
- 박경수 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국학자료원, 2004), 531-535쪽.
- 박경수, 「백철의 일본에서의 문학활동 연구」, 『한국 시가의 사상적 모색』(부산: 실현이동영박사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8), 582-583쪽.
- 박경수, 「정노풍의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론」,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도서출판 역락, 2004), 529-555쪽.
- 박경수, 「한국 현대시와 현해탄」, 『문학도시』 통권 64호(2006. 5).
- 심훈, 『그날이 오면』(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133-135쪽.
- 양왕용, 「한국 현대 해양시와 현해탄·대양·연근해 체험」, 『한국시문학』 제15집(한국시문학회, 2004. 12), 48-76쪽.
- 오세영, 「한국문학과 바다」, 『20세기 한국시의 표정』(새미, 2001. 12), 327-333쪽.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실천문학사, 1987), 158-172쪽.
- 이명원, 「김윤식 비평에 나타난 ‘현해탄 콤플렉스’ 비판」, 『전농어문연구』 제11집(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1999), 247-274쪽.
- 이사라, 「정지용 시의 기호론적 연구」, 오세영 외, 『구조와 분석 I』(도서출판 창, 1993), 259쪽.
-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상)』(동화출판공사, 1975), 197쪽.

정지용, 『백록담』(1941. 9).

정지용, 『정지용시집』(시문학사, 1935), 22-23쪽, 42쪽, 58쪽.

조규익, 「고전문학과 바다」, 『지평의 문학』 통권 2호(1994. 3), 20-40쪽.

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2001), 24-38쪽.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사전』(청하, 1989. 7), 147-158쪽.

『학원세계대백과사전(2)』(학원출판공사, 1994. 5), 138-139쪽.

<Abstract>

The aspects of Hyunhaetan experiences
figured in Korean modern poems and its
meaning

Park, Kyung-Su

This paper aims to grasp on the aspects and its meaning of experiences in Hyunhaetan(i. e., the Strait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figured in Korean modern poetry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 In Jung Ji-Yong's poems, Hyunhaetan is the space that expresses the pride of oneself and one's affirmative mind on the optimistic view of the world.

ii) In Lim Wha's poems, Hyunhaetan is figured as a space that one recognize the historical truth, and examine oneself as an intellectual and make double sure one's efforts to recover the historical dilemma.

iii) In Kim Seuk-Song and others' poems about the wandering people, Hyunhatan is a sea route that one witness the miserable and sorrowful life of the people who is emigrating and returning home.

iv) In Kim Byung-Ho and others' poems which appeared in Japanese literary world in Japanese, Hyunhaetan is figured as the actual places which one witness the tragic affairs of Korean Diaspora living in Japan as an immigrant worker.

Key Words : Hyunhaetan(i. e., the Strait between Korea and Japan),

Hyunhaetan complex, Jung Ji-Yong, Lim Wha, Kim Seok-Song, Jeong Ro-Pung, Shim Hun, Kim Byung-Ho, Baek Cheol, Kim Yong-Jae, poems about the wandering people, Korean Diaspora, the Korean immigrant worker, Korean poems written in Japanese in Japan